

개정된 四象體質分類檢査紙 II 에 대한 임상적 고찰

김상복* · 이준희* · 박계수* · 정용재* · 이수경* · 송일병*

Abstract

A Study on responses to the questionnaire based on of revised Sasang Constitution Classification II (QSCC II⁺)

Kim Sang-bok · Lee Jun-hee · Park Gye-soo · Jeong Young-jae · Lee Su-kyung · Song Il-byung

Dept. of Sasang Constitutional Medicine, College of Oriental Medicine, Kyung-Hee University

Revised QSCC II is made depend on revised soeum scale, revised taeum scale and revised soyang scale, and used in KyungHee University Medical Center.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validity of revised QSCC II and to analyse the tendency of respondents of revised QSCC II. For this study, the objects are 57 patients who response to QSCC II and revised QSCC II in Oriental Medicine & Western Medicine Cooperative Health Examination Center KyungHee University Medical Center. a systematic analysis has been made.

As a results, we have found that revised QSCC II have a validity. there is agreement of Tendency of the respondent of QSCC II with revised QSCC II. we hope that suitable questionnaire will be developed for the research in the future.

Key word : Revised QSCC II, QSCC II, Sasang constitution, Tendency of the respondent,

I. 緒 論

四象醫學을 創始한 東武 李濟馬는 '四象'으로 畵
畵되어지는 四元 構造의 認識 體系를 定立하였으며,
이를 醫學에 適用하여 人을 太少陰陽의 네 體質
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다.

사람마다 각각의 性情의 偏差로 인하여 臟局의
大小偏差가 나타나며, 이는 '性質材幹', '恒心', '心
慾', '體形氣像', '容貌詞氣', '體質素證' 및 '體質病證'
³⁶⁾에서의 體質的 差等性로 나타나게 된다. 이러한
差等點들이 體質 鑑別의 基準들이 되어지며 이는

東武의 著書인 「東醫壽世保元」, 「格致藁」, 「東武
遺稿」 및 「東醫壽世保元四象草本卷」에서 구체적으
로 敘述되어지고 있다.

四象體質鑑別에 있어 이 基準들의 統合的인 分析
이 필수적인데 이에 어려움이 있어 研究者 또는 臨
床家마다 四象體質鑑別 方法에서 약간의 차이를 보
이고 있어 이의 補完을 위해서 客觀的인 基準의 確
立이 필요하여, 이를 위하여 많은 研究들이 修行되
었다. 이를 보면 身體的 要素를 中心으로 한 測定方
法으로 體型的 각 分節을 計測한 李¹⁷⁾와 李¹⁹⁾, 洪²⁰⁾,
李²²⁾, 許²⁶⁾ 등의 研究와 頭面部를 計測한 洪²⁸⁾²⁹⁾와 高

* 경희대학교 한의과대학 사상체질과

교신저자: 김상복 (주소) 서울 동대문구 회기동 1번지 경희의료원 한방병원 사상체질과 Tel) 958-9233 E-mail) K701116@komet.net

3), 金¹¹⁾ 등의 연구가 이루어졌다. 또 다른 유형으로 心性的 要素를 中心으로 하는 說問紙를 이용하는 方法에 대한 연구가 있는데, 이 方法은 綜合的인 情報를 包含하고 있어 多樣한 說問紙에 대한 연구⁴⁹⁾¹⁰⁾¹¹⁾¹⁴⁾¹⁵⁾¹⁹⁾가 이루어졌다. 이들 說問紙 중에서 妥當性의 檢證 過程을 거쳐 現在 가장 普遍的으로 使用 되 것이 四象體質分類檢査紙(QSCC II)이며, 이는 高²⁾ 등의 設問紙 方法에 대한 기초 연구를 바탕으로 金⁶⁾ 과 李²⁴⁾가 四象體質分類檢査紙(QSCC)를 구성하였고 이를 補完하여⁷²³⁾ 개발된 설문지이다.

四象體質分類檢査紙(QSCC II)는 妥當性을 檢證하기 위한 여러 연구가 나¹²⁾등에 의해서 수행되어서 각 체질별로 유의성 있는 척도 문항이 제시되었으며 그에 따른 판별식을 개발하여 각 체질을 진단할 수 있게 되었다. 이에 각각의 체질별로 유의하다고 제시된 문항으로 설문지를 재구성한 바 이를 개정된 四象體質分類檢査紙(QSCC II⁺)라고 칭하기로 하고 이를 임상에서 응용하고 있다.

이에 본 著者는 QSCC II⁺의 재구성에 있어서 타당성을 알아 보기 위하여 기존의 QSCC II 및 문항의 응답율을 比較 調査하기 위해 慶熙醫院院 附屬 東西綜合健康診斷센터에 2001年 11월부터 12月사이에 內院한 患者 중 두 설문지에 모두 응답한 57명을 대상으로 두 설문지를 比較 檢討하여 다음과 같은 有意한 結果를 얻었기에 이에 報告하는 바이다.

II. 本 論

1. 개정된 四象體質分類檢査(QSCC II⁺)의 概要

개정된 四象體質分類檢査 II(QSCC II⁺)는 기존의 QSCC II의 항목 중 김³⁾, 나¹²⁾, 장²³⁾의 연구에서 유의하다고 검증된 항목을 위주로 재구성된 설문지이다. 이는 四象體質分類檢査(QSCC : Questionnaire for the Sasang Constitution Classification)에서 발전된 것으로 QSCC는 1993년 김⁶⁾에 의해 既存의 身體的 要素로 주로 구분되었던 體質鑑別에 反하여 精神的, 心理的 要素를 포함하여 臨床的으로 應用이 가능한 客觀的 基準을 마련하고자 제작된 說問紙形 自己報告式 檢査로 太陰人 60.0%, 少陽人 63.6%, 少陰人 48.1%로 平均判別率 55.56%의 鑑別正確度를 보인다고 보고되었으며, 이에 1996년 既存에 QSCC의 妥當化 研究

考察에서 提示된 問題點을 補完, 修整하여 四象體質分類檢査 II(QSCC II)가 製作되어서 太陰人 74.5%, 少陽人 60.6%, 少陰人 70.8%로 平均判別率 70.08%의 鑑別正確度를 보이는 水準으로 改善되었다.

QSCC II는 既存의 「東醫壽世保元」뿐만 아니라 「格致彙」 등에서도 體質을 鑑別할 수 있는 準據 資料를 마련하고, 四象辨證內容說問紙(I)이나 宋의 「알기 쉬운 사상의학」³¹⁾의 自家報告形 說問紙에서 有意性이 있는 問項을 活用한 것이다. 이에 2000년에 김³⁾, 나¹²⁾, 장²³⁾에 의해서 QSCC II의 문항의 유의성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져 각각의 체질별로 유의성이 있는 문항들에 의한 체질의 진단 및 그 판별식이 마련된 바 이 문항 및 기존의 태양인 항목 중 일부를 재구성하여 QSCC II⁺를 제작하게 되었다. 이는 기존의 QSCC II가 121문항인것에 비하여 54문항으로 구성되어 환자가 응답하는데 있어서 그 시간의 감소로 인한 환자의 편리 및 응답의 성실성이 증가 할 것으로 예상되면서도 그 체질판별율이 기존의 QSCC II와 거의 차이가 없거나 상승한 것으로 나타나 임상에서의 활용성이 증가할 것으로 사료된다.

QSCC II⁺의 문항은 표 1. 과 같이 구성되어 있으며 이 중에서 1번 문항에서 12번 문항까지는 선다형 문항이고, 13번부터 54번까지는 일처리아 장단점, 대인관계, 평소의 마음, 문제점, 감정특성, 행동특성, 몸상태 등으로 구분하여 그렇다(O), 아니다(X)로 응답하는 문제이다.

표 1 개정된 QSCC II의 체질척도의 분포

	소양인 척도	태음인 척도	소음인 척도	태양인 척도	총 문항수
QSCC II 항목	39	38	51	24	
QSCC II ⁺ 항목	19	17	35	16	
	12	14	30	16	기존 항목
	7	3	5	0	추가된 항목

기존의 항목중 유의성이 있다고 보고된 소양인 12항목, 태음인 14항목, 소음인 30항목이 포함되고, 새로 추가된 항목으로는 소양인 항목에서는 기존 85번인 태음인 항목, 17번 34번인 태양인 항목 2개와 체질 항목이 아니던 항목이 4개로 모두 7개이며,

태음인 항목에서는 22번인 소음인 항목과 12번 19번인 소양인 항목 2개로 모두 3개가, 소음인에서는 태음인 항목 1개 태양인 항목 1개 체질 항목이 아닌 항목 3개가 추가되었다. 태양인 항목은 태양인이 최소한 관계로 그 자료가 부족하여 다른 체질 척도와 중복되는 12개 항목에 기존의 설문지에서 다른 체질의 응답이 적으면서 문헌적으로 유의하다고 생각되어지는 4문항을 추가하여 16문항이 포함되었다. 이들 항목 중 태양인 항목은 유의성 연구에 어려움이 있어 이를 제외한 3체질의 척도만을 논한다.

이들 항목중 두 체질의 체질항목으로 보고된 것이 9문항이며 6개의 항목이 세 체질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표2와 같다.

표 2 두 체질 이상에 관련된 체질 척도

	1-12 문항중	13-54 문항중
소음·소양	1	1
소양·태음	0	2
태음·소음	4	1
소음·소양·태음	6	0

또한 이들 問項은 體質診斷의 基準의 特性別로 身體的 要素에 관련된 問項, 心性的 要素에 관련된 問項과 體質素證과 體質病證에 관련된 問項으로 나눌 수 있다. 四象人의 身體的 要素는 靜的 觀察 方法인 體形氣像과 動的 觀察 方法인 容貌詞氣으로 細分되어지고, 心的 要素는 다시 性質과 才幹, 恒心, 心慾 등으로 세분된다. 이에 따라 QSCCⅡ⁺의 問項을 나누어보며 身體的 要素에 關한 8問項, 心性的 要素에 關한 36問項, 體質素證과 體質病證에 關한 6問項으로 總 54問項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를 보면 대변, 소변, 피부상태, 안구상태, 흉격병증에 해당하는 항목들이 제외된 것을 알 수 있는데 이들 항목들은 전문의사와 환자 사이의 개념이나 표현에 있어서 차이가 많이 있을 수 있는 부분으로 설문지 상에서 한 두 항목으로 표현하기에는 힘이 들며, 전문의사의 직접적 교류를 통해서 정확히 정의될 수 있는 부분으로 사료된다.

표 3 체질 항목의 분류

身體的 要素	體形氣像 (靜的 觀察)	1,2,3,4,5,6
	容貌詞氣 (動的 觀察)	9,11
心性的 要素	性質才幹	13,14,15,16,17,18,19,20,21,22,23, 24,25,27,35,38,39,40,47
	恒心	26,28,29,30,31,32,33,34,36,37, 44,46
	心慾	41,42,43,45,48
	汗	50
	喜溫冷	7,8
	消化狀態	49,51,54
	大便	None
病症	小便	None
	皮膚狀態	None
	眼球症狀	None
	胸膈病症	None
	虛勞	52,53

2. QSCCⅡ⁺의 임상적 고찰

경희의료원 부속 동서종합건강진단센터에 2001년 11월부터 12월 사이에 내원 환자 중 두 설문지에 모두 응답한 57건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QSCCⅡ⁺는 소음인 15명, 태음인 18명, 소양인 24명으로 판별하여 기존의 QSCCⅡ가 소음인 6명, 태음인 21, 소양인 30으로 판별한 것과 비교해 볼때 소음인의 판정이 증가한 특징을 보이고 있다.

QSCCⅡ⁺와 기존 설문지의 응답 일치율을 살펴보면 아래 표와 같이 가장 많은 일치를 보인 경우는 49항목이며 가장 적은 것은 31항목이며 평균은 40항목으로 74% 정도의 일치율을 보인다.

표 4 두 설문지의 동일 응답 문항수

동일 응답 문항	피검자수
50개 이상	0
45-49	3
40-44	33
35-39	15
30-34	6
29이하	0

1) 소음척도 항목의 응답율

번호	척도 항목	소음	태음	소양	태음 +소양
1	당신의 체격은 어떻습니까? ③ 체격이 작은 편이다	40.0	16.7	0.0	7.1
2	당신의 체형은 어떻습니까? ③ 마른 편이다	0.0	33.3	0.0	14.3
3	당신의 체형에서 상하체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② 하체가 상체에 비하여 발달되어 있다	40.0	16.7	25.0	21.4
4	다음중 당신의 체형은 어디에 해당됩니까? ④ 엉덩이부위가 잘 발달하였고 가슴부위가 빈약하다	60.0	33.3	25.0	28.6
5	전체적인 외모와 골격은 다음 중 어디에 해당합니까? ② 골격이 작고 균형이 잡혀있다	80.0	50.0	25.0	35.7
6	당신의 가슴은 다음 중 어디에 해당됩니까? ② 빈약하고 구부정하다(새장형)	60.0	0.0	0.0	0.0
7	당신은 다음중 어떤 음식을 좋아하십니까? ② 따뜻한 음식	100.0	16.7	37.5	28.6
8	당신은 다음중 어디에 해당됩니까? ① 평소 손, 발이 찬 편이다	60.0	50.0	25.0	35.7
9	당신의 걸음걸이는 다음 중 어디에 해당됩니까? ② 걸음걸이가 자연스럽게 앞전하다	80.0	16.7	37.5	28.6
10	당신은 다음중 어디에 해당됩니까? ② 평소에 땀이 많지 않고 조금만 땀을 내도 피곤하다	20.0	50.0	25.0	35.7
11	당신은 다음 중 어디에 해당됩니까? ④ 태도가 온순하고 꾸밈이 없다	60.0	33.3	75.0	57.1
12	다음 중 당신은 어느 쪽입니까?(일처리 또는 생활습관) ③ 움직이기보다는 조용히 혼자 일을 추진하는 편이다	60.0	66.7	37.5	50.0
16	진득하게 한곳에 오래 있을 수 있다	40.0	16.7	25.0	21.4
17	치밀하고 꼼꼼한 편이다	100.0	83.3	50.0	64.3
18	가까운 사람끼리만 어울리는 편이다	80.0	100.0	37.5	64.3
20	사회적인 일보다 개인적인 일에 열심이다	0.0	66.7	62.5	64.3
21	외면적인 것보다 내면적인 것을 더 중요시한다	40.0	16.7	37.5	28.6
23	단정하고 신중하다	100.0	50.0	50.0	50.0
25	다정 다감하여 남을 잘 달랜다	100.0	66.7	75.0	71.4
29	처음에 남앞에 잘 나서지 못한다	80.0	66.7	12.5	35.7
30	평소 소심하여 항상 불안한 편이다	60.0	66.7	0.0	28.6
31	평소에 신경이 예민한 편이다	60.0	83.3	12.5	42.9
32	인내심이 많다	80.0	66.7	62.5	64.3
34	별일이 아닌데도 조바심 치며 불안해한다	60.0	66.7	12.5	35.7
36	별것 아닌 사소한 일 때문에 짜증을 내곤 한다	60.0	50.0	25.0	35.7
37	앞에 나가서 말을 하거나 발표하는 것이 어렵다	80.0	66.7	50.0	57.1
40	마음이 상했다더라도 껌참은 척 한다	40.0	33.3	37.5	35.7
41	내 생각이 옳다고 확신되기까지는 함부로 말하지 않는다	60.0	83.3	62.5	71.4
45	남앞에 잘 나서지 못한다	0.0	0.0	0.0	0.0
46	소심하여 항상 불안한 편이다	40.0	33.3	0.0	14.3
48	여성적인 면이 많고 남성적인 면이 적다	60.0	0.0	25.0	14.3
51	몸이 안 좋으면 소화가 잘되지 않는다	80.0	33.3	37.5	35.7
52	평소에 기운이 없어 한숨을 내쉬는 경우가 자주 있다	60.0	33.3	0.0	14.3
53	온몸과 다리가 힘이 빠져 움직이기 어려운 증상을 경험한 적이 있다	60.0	33.3	12.5	21.4
54	음식을 먹은 후 가슴과 배가 더부룩한 증상이 자주 있다	60.0	50.0	50.0	50.0

2) 소양척도 항목의 응답율

번호	척도 항목	소양인	소음인	태음인	소음 + 태음
2	당신의 체형은 어떻습니까? ② 보통이다	62.5	100.0	63.6	63.6
3	당신의 체형에서 상하체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③ 상하체가 비슷하다	62.5	80.0	54.5	54.5
5	전체적인 외모와 골격은 다음 중 어디에 해당합니까? ③ 보통이며 다부진 체격이다	75.0	20.0	18.2	18.2
6	당신의 가슴은 다음 중 어디에 해당됩니까? ③ 넓고 튼튼한 편이다(근육형)	37.5	0.0	0.0	0.0
9	당신의 걸음걸이는 다음 중 어디에 해당됩니까? ③ 걸음걸이가 빠르고 몸을 흔든다	50.0	20.0	27.3	27.3
11	당신은 다음 중 어디에 해당됩니까? ② 활동적이고 용감하다	0.0	20.0	27.3	27.3
12	다음 중 당신은 어느 쪽입니까?(일처리 또는 생활습관) ① 무슨 일이든지 물러서지 않고 밀고 나간다	27.3	40.0	16.7	27.3
13	무슨 일이나 시원스럽게 처리한다	50.0	60.0	50.0	54.5
14	활발하고 대가 센 편이다	12.5	0.0	16.7	9.1
15	매사에 이해를 따지지 않고 나서는 편이다	25.0	40.0	33.3	36.4
19	사람을 사귄 때 이것저것 따지지 않고 쉽게 잘 사귄다	37.5	60.0	33.3	45.5
24	성격이 시원시원하다	50.0	60.0	33.3	45.5
28	항상 급하게 서두르는 편이다	37.5	40.0	83.3	63.6
33	행동이 경솔한 편이다	12.5	40.0	16.7	27.3
35	남성적인 면이 많고 여성적인 면이 적다	37.5	20.0	50.0	36.4
36	별 것 아닌 것이 어려워 속상할 때가 많다	25.0	60.0	50.0	54.5
38	평소에는 명랑하지만 감정의 기복이 심한 편이다	75.0	100.0	66.7	81.8
42	아는 척 하거나 과시하는 경우가 많다	12.5	0.0	33.3	18.2
44	자신에게는 소홀히 하고 남에게는 깍듯이 대한다	37.5	80.0	33.3	54.5

3) 태음척도 항목의 응답율

번호	척도 항목	태음	소양	소음	소양 + 소음
1	당신의 체적은 어떻습니까? ① 체적이 큰 편이다.	50.0	0.0	0.0	0.0
2	①당신의 체형은 어떻습니까? 뚱뚱한 편이다.	50.0	0.0	0.0	0.0
3	당신의 체형에서 상하체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① 상체가 하체에 비하여 발달되어 있다.	50.0	12.5	0.0	7.7
5	전체적인 외모와 골격은 다음 중 어디에 해당합니까? ① 골격이 굵고 살이 썩 편이다.	33.3	0.0	0.0	0.0
6	당신의 가슴은 다음 중 어디에 해당됩니까? ① 가슴이 넓고 잘 발달되어 있다.	33.3	12.5	0.0	7.7
8	당신은 다음중 어디에 해당됩니까? ② 평소 손, 발이 따뜻한 편이다.	50.0	25.0	60.0	38.5
9	당신의 걸음걸이는 다음 중 어디에 해당됩니까? ① 걸음이 느리고 무게 있게 걷는다.	16.7	0.0	0.0	0.0
10	당신은 다음중 어디에 해당됩니까? ① 평소에 땀이 많고 땀을 흘리면 오히려 상쾌하다.	50.0	12.5	40.0	23.1
11	당신은 다음 중 어디에 해당됩니까? ② 활동적이고 용감하다.	33.3	0.0	0.0	0.0
14	활발하고 대가 센 편이다.	16.7	12.5	0.0	7.7
16	진득하게 한 곳에 오래 있을 수 있다.	16.7	25.0	40.0	30.8
22	사람을 사귄 때 이것저것 따져서 쉽게 사귀지 못하는 편이다.	50.0	37.5	20.0	30.8
26	각종 사회활동 모임에 즐거이 참여한다.	33.3	37.5	20.0	30.8
27	나는 사람을 볼 때 그 사람이 부지런한지 아닌지를 금방 알아차린다.	100.0	50.0	60.0	53.8
32	인내심이 많다.	66.7	62.5	80.0	69.2
35	남성적인 면이 많고 여성적인 면이 적다.	50.0	37.5	20.0	30.8
50	몸이 안 좋을 때 땀을 내면 개운하다.	66.7	25.0	40.0	30.8

III. 고찰 및 결론

최근 四象醫學에 대한 관심이 韓醫學계 뿐만 아니라 일반인 사이에서도 크게 증가하고 있어, 四象醫學의 출발점이 되는 體質 診斷의 客觀化에 대한 必要性이 어느 때보다도 증가되고 있다. 현재 體質 診斷의 客觀化를 위한 노력으로 다양한 시도가 있었으며, 그 중 가장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는 것이 설문지에 의한 방법이며, 그 중에서도 QSCCⅡ가 學術的으로나 臨床的으로 가장 공인되어 있는 방법이다. 그러나 QSCCⅡ는 그 문항의 수가 너무 많으며 문구가 난해한 부분이 있어 被檢者의 說問 作成에 있어서 誠實性을 저하시키는 부분이 있었으며, 재평가를 통한 개선 작업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에 2001년에 발표된 金³⁾, 나¹²⁾, 張²⁵⁾의 연구가 실시되어 太陽人을 제외한 太陰人, 少陰人, 少陽人에 대한 척도 문항의 妥當性 研究가 실시되었으며 그 體質 判定을 위한 判別式이 마련되어 그 개선 방향을 제시하였다. 이를 토대로 經회의료원 四象醫學科에서는 유의성이 있다고 증명된 體質 尺度를 위주로 QSCCⅡ를 개정하였고 이를 QSCCⅡ⁺라고 칭하고 이를 臨床에 적용하고 있다.

QSCCⅡ⁺는 QSCCⅡ의 121개의 문항 중 유의성이 증명된 54문항으로 문항을 사용한 것으로 문항의 내용엔 변동이 없다. 이는 被檢者의 응답이 문항의 수에 상관 없이 동일한 것으로 상정하고 개정한 것이다. 이에 두 설문지의 동일 문항의 응답을 비교한 결과 문항별 응답일치율이 74%를 보이고 있으며, 일반 설문지의 재현율보다 조금 낮은 것으로 평가된다. 이는 평이한 문항보다 난해한 문항의 일치율이 낮은 것으로 보아 일치율이 낮은 문항에 대한 척도 가치의 재해석이나 중복된 구조로 된 문항들을 단순 구조로 만들거나 보다 명확한 명사의 사용이나 분명한 상황이나 시간 설정을 통한 문항의 의미를 보다 명확하게 하는 작업을 통해서 상승시킬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체질 감별 결과의 일치율이 이보다 낮은 수치를 보이고 있는데 이는 판별식의 변화에 따른 것으로 이는 추후에 정확히 체질이 진단된 자들의 설문지 문항 및 결과의 분석을 통해서 그 실제 체질 진단 정확성에 대한 연구가 시행되어야 한다.

각각의 체질별로 그 문항의 특징을 살펴보면 소

음인 척도 항목에 있어서는 35문항중 4문항을 제외한 문항이 기대대로 체질을 잘 판별하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50%이하의 응답율을 보인 항목이 7 항목이며 그 중에 2. 20. 45번 항목은 응답한 사람이 없었다. 특히 “45. 남 앞에 잘 나서지 못한다.”란 척도는 모든 체질에 있어서 응답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 재고의 필요성이 있다. 항목 중 태음인들이 응답을 보다 많이 하거나 비슷한 항목이 16개로 소양인의 7개보다 많이 나타나고 있다.

소양인 척도 항목에 있어서는 7개 문항에서 체질 판별이 되고 있어 다른 체질 항목에 비해 낮은 응답율의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태음인 소음인 모두 응답율이 높은 항목이 10개 이상으로 기대와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으며 응답율이 50%이하인 항목도 12 항목으로 다른 체질 항목에 비해 많은 편이다. 그리고 11번 척도의 경우 소양인에서는 응답자가 없는 양상을 보였다. 이는 소양인 항목이나 판별식에 대한 추후 연구가 필요하리라고 생각되어진다.

마지막으로 태음척도는 17 문항 중 2문항을 제외하고 체질 판별의 유의성을 보여 주었으며 4문항에서 50%이하의 응답율을 보이나 이들 문항도 다른 체질과의 응답율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소음인과 소양인 높게 응답한 항목은 각각 4개이다. 특히 태음인 항목은 3문항을 제외한 문항에서 다른 체질의 응답율이 50%이하로 가장 분명한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이번 연구를 통해 얻은 몇가지 지론은 다음과 같다.

1. 기존 121 문항의 QSCCⅡ과 54문항의 QSCCⅡ⁺는 피검자가 동일 문항에 대해 유의하게 동일하게 응답한다고 할 수 있다.
2. 재구성된 소음항목과 태음항목은 그 유의성이 QSCCⅡ⁺에서도 유지되고 있어 척도로서 타당하다.
3. 재구성된 소양척도는 일부 척도의 유의성이 재검증되어야 한다.

이상에서 보면 문항의 재해석 및 조절과 태양인 척도의 검증이 시행되어하며, QSCCⅡ⁺의 체질감별의 정확도에 대한 조사 및 이를 통한 지속적인 설문지의 개정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參考文獻

1. 고병희 외 1인 : 사상체질변증방법론 연구(제2보), 대한한의학회지, 8 (1), 1987.
2. 고병희 외 1인 : 사상체질변증에 관한 소고, 대한한의학회지, 6(1), 1985.
3. 고병희 외 7인 : 사상체질별 두면부의 형태학적 특징, 사상체질의학회지, 8(1) : 101-186, 1996.
4. 김달래 : 설문지를 이용한 체질감별방법의 신뢰도에 관한 연구, 사상체질의학회지, 6(1) : 89-94, 1994.
5. 김상복 외 4인 : 사상체질분류검사지II에 의한 소음인 진단의 타당성 연구, 사상체질의학회지, 13(1), 2001.
6. 김선호 외 2인 : 사상체질분류검사(QSCC)의 타당화 연구, 사상체질의학회지, 5(1) : 61-80, 1993.
7. 김선호 외 2인 : 사상체질분류검사(QSCCII)의 표준화 연구, 사상체질의학회지, 8(1) : 186-246, 1996.
8. 김수범 : 사상체질감별을 위한 전문가 시스템의 지적베이스 구축을 위한 연구, 경희대학교 대학원, 1989
9. 김영우 외 1인 : 사상체질 진단의 객관화에 관한 연구(기존 설문지의 분석을 중심으로), 11(2) : 151-184, 1999.
10. 김종열 외 2인 : 체질판별표를 이용한 체질판별의 객관화 방안, 사상체질의학회지, 10(1) : 181-214, 1998.
11. 김태균 외 1인 : 새로운 사상체질 설문지의 임상적 활용에 관한 연구, 사상체질의학회지, 11(1) : 173-185, 2000.
12. 나대운 : 사상체질분류검사지II에 의한 소양인 진단의 타당성 연구, 경희대학교 대학원, 2001.
13. 노정우 외 4인 : 사상체질분류검사의 타당화 방안 모색을 위한 설문 조사 결과분석, 사상체질의학회지, 8(2) : 239-253, 1996.
14. 박성식 외 2인 : 설문지에 의한 사상체질 판정의 일치도 분석, 사상체질의학회지, 11(1) : 103-118, 1999.
15. 박은경 외 1인 : 설문지 항목에서의 체질별 응답 차이 비교분석연구, 사상체질의학회지, 12(1) : 157-172, 2000.
16. 박은경 외 1인 : QSCCII 설문지 항목에서의 체질별 응답차이 비교분석연구, 사상체질의학회지, 13(1) : 78-93, 2000.
17. 이문호 외 1인 : 사상체질유형과 체격 및 신체형태지수와의 비교연구, 사상체질의학회지, 2(1) : 71-86, 1990.
18. 이수경 외 2인 : 사상의학의 형성과정에 관한 문헌적 고찰, 사상체질의학회지, 10(1) : 41-54, 1998.
19. 이수경 외 3인 : 신체체측 및 검사소견을 중심으로 한 사상인의 특징에 관한 분석, 사상체질의학회지, 8(1) : 349-376, 1996.
20. 이의주 외 2인 : 사상변증내용 설문조사지(I)의 타당화 연구, 사상체질의학회지, 7(2) : 89-100, 1995.
21. 이의주 외 3인 : 사상인의 형태학적 특징에 관한 연구, 사상체질의학회지, 10(2) : 181-220, 1998.
22. 이의주 외 3인 : 한국인 신체분절에 관한 사상의학적 연구, 사상체질의학회지, 10(1) : 143-160, 1998.
23. 이정찬 외 2인 : 사상체질분류검사(QSCCII)의 타당화 연구, 사상체질의학회지, 8(1) : 247-294, 1996.
24. 이정찬 외 3인 : 사상체질분류검사의 준거타당화 연구, 사상체질의학회지, 5(1) : 81-98, 1993.
25. 장현록 : 사상체질분류검사지II에 의한 태음인 진단의 타당성 연구, 경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1.
26. 조황성 외 7인 : 체질진단의 객관화에 관한 연구-생화학적 분석자료를 중심으로-, 사상체질의학회지, 9(2) : 147-162, 1997.
27. 허만희 외 3인 : 사상인의 형태학적 도식화에 관한 연구, 사상체질의학회지, 4(1) : 107-148, 1992.
28. 허반옥 외 1인 : 조선족 성인 300명에 대한 사상의학적 체질측정, 사상체질의학회지, 6(1) : 55-66, 1994.
29. 홍석철 외 2인 : 사상체질별 상안부의 형태학적인 특징에 관한 연구, 사상체질의학회지, 10(1) : 161-170, 1998.
30. 홍석철 외 5인 : 사상체질진단의 객관화를 위한 형태학적 연구, 사상체질의학회지, 10(1) : 171-180, 1998.
31. 홍석철 외 7인 : 체간부의 사상체질별 형태학적

- 특징에 관한 연구, 사상체질의학회지, 10(1) : 101-142, 1998.
32. 송일병 : 알기쉬운 사상의학, 사상사, 48-65, 1996, 서울.
33. 안재역 : 의학 보건학 통계분석, 고려정보산업, 2000년, 서울.
34. 이제마 : 격치고, 태양사, 1985, 서울.
35. 이제마 : 동의수세보원, 여강출판사, 44, 1992, 서울.
36. 이제마 : 동의수세보원초고, 도서출판 정담, 1999, 서울.
37. 전국한의학대학교 사상의학교실 : 사상의학, 집문당, 120-124, 1997, 서울.
38. 한국심리학회 : 심리검사(제작 및 사용지침서), 중앙적성출판사, 33-47, 1998, 서울.